



신난다~겨울 성탄절인 25일,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팅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팅을 하며 휴일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지난 18일 개장한 야외스케이팅장은 내년 1월31일 까지 운영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45명이 380억 피해봤지만 구제는 요원

절반값에 흑해 무더기 피해...“투자원칙만 지켰어도” 지적 브로커 112명 입건...은닉자금·사채업자 공범 규명 속제

2016 사건 그 후 1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피해자 수 545명, 피해금액 380억원(경찰 집계).
지난 5월 분양사기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광주시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 중복 분양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 면에서 ‘역대급 분양사기’라는 평가에 걸맞게 풀어야 할 의혹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사기행각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와 그 일당이 감춰둔 자금은 없는지, 사기 피해자들을 울리는데 일조했으나 교묘히 범망을 빠져나간 인물들은 없는지 등이다.
분양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아속한 지적이지만 사건이 불거진 이후 부동산업계에

서는 “기본적인 투자 원칙만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란 평가도 나왔다. 사기단이 내세운 ‘회사 보유분 오피스텔 절반가 할인’이라는 솔깃한 광고가 있더라도 제로금리 시대에 2배에 이르는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처가 있겠느냐며, 투자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사기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기간 이뤄졌다. 사기의 무대는 광천 종합버스터미널 맞은편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 자금 압박을 받은 시행사 대표 박모(58)씨가 건물 공사를 이어가고 채무를 갚으려고 총 482채(1호당 면적 22㎡) 가운데 정상 분양된 401세대를 제외한 81세대를 중복분양한 것이다.
처음엔 시공사 등에 채권 대신 대물 변제 형식으로 미분양분을 정상적으로 분양했으나 금융이자 등 자금난이 거세지자

생활정보지 광고,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매개로 오피스텔을 2차, 3차 분양하면서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난해 11월 사용승인이 났는데도 입주 지연되고 매물이 쏟아지자 입주 예정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눈 결과, 오피스텔 1세대에 원 분양자 외에도 여러 명의 분양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양사기의 실체가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행사 대표 박씨 등 시행사 임직원 4명을 지난 8월 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기 분양을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브로커 112명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입건된 공인중개사들은 “사기 분양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분양이 성사될 때마다 정상 수수료의 2~3배에 이르는 30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점에서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화를 키웠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투

자의 기본 원칙을 지켰더라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 분석도 나왔다. 한 채에 7000만~8000만원에 거래되던 오피스텔을 3000만~40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상 거래 범주를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측에 대금을 입금한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분양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비대위) 측은 “신탁사도 사기단의 공범”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은 신탁사 공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채업자와 거물급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들이 시행사 측에 고리대부를 부추겼다는 비대위 측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3개월가량 수사를 벌인 끝에 시행사 측과 역대의 자금 거래를 한 인물 20여명을 추려내고 2명을 입건했지만, 나머지 인물들의 불법 여부를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대·조선대 ‘대학기관평가 인증’

전국 30곳... 조선대, 부문별 우수사례 선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은 25일 ‘2016년 대학기관평가 인증’ 결과, 전남대와 조선대 등 전국 30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증’은 전입생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개 필수 평가기준과 5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한 대학을 말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조건부 인증’은 6개 필수평가기준은 모두 충족했지만 5개 평가영역 중 1개가 미흡한 대학으로, 인증 유효기간 2년에 이어 보완평가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원은 조건부 인증을 받은 대학 4곳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대와 서울대 등 9개 대학은 대학성과, 사회적 책무, 교수·학생 등 평가부문별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대학기관 평가인증제는 대학 교육의 질 보장,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 확보 등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다.
대교협의 한국대학평가원이 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돼 5년 주기로 각 대학 신청을 받아 인증을 해주고 있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대학들은 대부분 1주기(2011~2015년) 인증사업의 첫해였던 2011년에 인증을 받고서 5년 유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인증을 재신청해 갱신한 곳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재난대응 학교 매뉴얼 보급

지진과 폭염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학교현장에서 교육과 훈련 요령을 제시한 매뉴얼이 새롭게 개발돼 보급된다.
교육부는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개정해 각 학교에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매뉴얼은 재난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기타 재난으로 분류하고 17개 유형을 제시해 교육과 훈련을 하도록 했다. 새로 마련된 매뉴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와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saf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해질 17:27, 달출 04:36, 달짐 15:28

우산 챙기세요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강우량은 5~40mm.

광주	비	5/9	보성	비	5/10
목포	비	6/8	순천	비	6/11
여수	비	8/10	영광	비	4/8
나주	비	4/9	진도	비	5/10
완도	비	7/10	전주	비	5/8
구례	비	4/9	군산	비	4/7
강진	비	5/10	남원	비	4/8
해남	비	5/9	축산도	비	7/8
장성	비	4/9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1.5
	면바다	북동~동	1.0~2.0	북~북동	1.0~2.5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남서~서	0.5~1.5
	면바다(동)	동~남동	1.0~2.0	남서~서	1.5~2.5
면바다(서)	동~남동	1.0~2.0	남서~서	1.0~2.5	

보통	+
뇌졸중	+
보통	+
감기	+
관심	+
체감온도	+

27(화)	28(수)	29(목)	30(금)	31(토)	1/1(일)	2(월)
☁	☁	☁	☁	☁	☁	☁
3/5	-3/5	-2/6	-2/6	-1~2/67	-1/8	-1/8

내년 1~3월 비 적고 예년보다 포근

겨울가뭄 우려

내년 1~3월 광주·전남은 갑작스런 강추위가 찾아오는 날도 있겠지만 대체로 평년보다 포근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돼 또다시 가뭄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2017년 1~3월 광주·전남의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광주·전남의 평균 기온이 1월 15.5도, 2

월 3.0도, 3월 7.0도인데 기상청은 이 기간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본 것이다.
1~2월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3월은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상청 분석이다.
기상청은 그러나 겨울철 찬 대륙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는 시기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량은 1월은 평년 강수량 31.3mm와 비슷하고 2월은 평년(46.4mm)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담양 이전

2018년 완공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5지구대)가 장성에서 담양으로 이전한다.
25일 5지구대와 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재 장성군 남면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양소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5지구대는 담양군 담양읍 광주-대구고속도로 인근 유흥지로 옮긴다. 토지매입과 신축에 총 25억여원이 투입되며, 2018년 완공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재 5지구대가 임대하는 건물은 준공된 지 35년이 넘었고 공간이 협소해 업무수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5지구대에는 60여대 근무하고 순찰차량 30여대가 있다. 5지구대 관할구역은 호남고속도로(순천-여산휴게소), 광주-무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서순천-섬진강휴게소, 영암-순천), 순천-완주고속도로(동순천-순창), 광주-대구고속도로(고서-남원) 등 총연장 476km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서남권 시티투어

아름다운 풍경+전통의 미(美)+살의 여유(樂)

정읍·고창·부안, 전라북도 서남권 시티투어에서 아름다운 풍경+전통+살의 여유를 만나세요.

코스	지역	요금
당일코스	내장산 코스	27,900
당일코스	내장산 국화	27,900
당일코스	선운사 열차	81,000
당일코스	고창·부안	24,900
당일코스	선운사 메밀	24,900
당일코스	선운사 변산	25,900
당일코스	변산반도	24,900
1박2일	서남권 가람	119,000
1박2일	서남권 체험	119,000
1박2일	서남권 문화	119,000

탑승장소 안내

- 서울 시청역 8번 출구 앞
- 서울 교대역 9번 출구 앞

예약문의

- 온라인예약 : (주)여행스케치여행사 www.toursketch.co.kr T. 02-701-2506
- 정읍시 관광개발과 www.jeongeup.go.kr T.063-539-5233
- 고창군 문화관광과 www.gochang.go.kr T.063-560-2457
- 부안군 문화관광과 www.buan.go.kr T.063-580-4778

시티투어 이용기간

- 당일코스 - 매주 수, 목, 금, 토, 일, 공휴일 출발
- 1박2일코스 - 매주 금, 토, 공휴일, 지정일 출발